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몸살앓는 무주

아파트 건설업체, 철거시 발생 한 300여톤 방치 환경오염 문제 심각... 주민, 피해보상 요구할 듯

무주군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려는 모 업체가 건축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김 모 제보자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는 최근 무주군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지건설을 철거하며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약 300여 톤을 불법매립 했다고 밝혔다.

모 업체의 제3차 아파트 공사현장은 그동안 안전시설 부실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 수돗물 도용 등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 된 바도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고물상에 건축 폐기물을 쌓아놓고 불법매립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에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임시보관이나 규격에 맞게 폐기물을 매립하려면 ②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무주군 관계자는 “모 업체에서 이러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를 건립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축폐기물은 법에 지정된 환경폐기물 처리회사에 맡겨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약 300여 톤 가량의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의 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환경 파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아파트 건립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조짐이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지를 철거하며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 폐기물.

주민 김 모씨는 “아파트건립 회사가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고물상에 쌓아놓고 일부 불법매립까지 했다”면서 그동안 관계기관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성토했다. 모 업체에서 폐기물을 운반 했다는 관계자 A씨는 “운반해서 버린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U-20 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 월드컵 성공개최의 일등공신 “활동할 수 있어 행복했다” 소감

지난 11일 막을 내린 2017 FIFA U-20 월드컵을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월드컵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온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29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대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헌신한 자원봉사단의 해단식을 가졌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해단식은 대회기간 활동영양감상 감사와 자원봉사자 활동소감 발표, 참여증서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이번 대회에서 경기지원과 배차관리, 의전 및 통역 등 12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원활한 경기진행 준비와 통역, 안내 등을 통해 완벽한 대회를 치르는데 앞장서준 자원봉사자 211명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친절한 자원봉사로 개막전 개최도시인 전주를 잉글랜드와 더불어 또 다른 우승자로 뽑힐 만큼 대회기간

가장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고, 가장 뜨거운 축구열기로 전 세계에 전주를 깊이 각인시키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에서 열린 9경기의 총 관중은 11만9,962명으로, 경기당 평균 1만3,329명이 경기를 관람했다. 이는 지난 2013년 터키 대회(5832명)와 지난 2015년 뉴질랜드 대회(7628명)보다 평균관중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회 성공개최에는 그 무엇보다 전주월드컵경기장과 공식호텔, 훈련장, 주차장 등 선수들과 축구팬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날 해단식에 참석한 경기지원 분야 자원봉사자는 “FIFA U-20월드컵 자원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지만, 이번 월드컵은 내생에 가장 특별한 월드컵으로 평생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대회를 앞두고 월드컵경기장의 대대적인 시설보수와 함께 K-POP공연과 전통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FIFA U-20월드컵을 문화월드컵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로 올라섰다

/인재용 기자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외 23명 정년 퇴임

전주시 발전 기여 · 한 평생 헌신... 공로패 수여 등 감사의 뜻 전달

전주시는 29일 시청 강당에서 영광스런 정년 퇴임식을 개최하고, 퇴임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에 퇴임하는 공무원들은 은희영 전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이용호 전 완산구청장, 정태현 전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24명으로, 퇴임자들은 가족과 후배 공무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를 받았다.

이날 정년퇴임식에서는 또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이들을 오랫동안 공직의 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에 충실한 배우자들에게는 전주시 전 공무원들의 감사의 뜻이 전달됐다.

퇴직자들을 대표한 은희영 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30년 이상 몸담았던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29일 시청 강당에서 영광스런 정년 퇴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퇴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이번 퇴직자 모두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어느 곳에서나 전주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퇴임 후에도 전주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퇴임 후에도 자랑스러운 공직자 상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효자지구대 범죄예방 홍보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는 29일 대출형사기 보이스포싱 등 범죄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보이스포싱 범죄가 대상을 불문하고 발생해 관내 금융기관, 약로원, 공원 등을 방문했다. 이어 예방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범죄수법별로 나누어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현귀 효자지구대장은 “최근에 보이스포싱이 날로 지능화돼 피해를 많이 입는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북경찰청-출판진흥원 협약

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전북청 접견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판문화 진흥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진흥원에서는 그 일환으로 도서 300권을 기증하기로 했다. 조희현 전북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서 문화가 활성화 돼 출판 수요 창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교회 문이 열려있어...” 헌금함 뜯은 20대 덩미

익산경찰서는 금품을 훔친 20대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교회와 호텔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익산 소재의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뜯어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덩미를 잡혔다.

A씨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총 10회에 걸쳐 충남 서산 및 익산에 위치한 교회와 호텔을 돌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기도시간에 교회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청년희망단 릴레이 캠페인... 응원 메세지 전달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29일 인후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청년 희망릴레이 캠페인은 전주시의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전주시역 시립도서관을 찾아가 구직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청년에 다음 달 방문할 도서관의 이름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릴레이 형식의 응원행이다.

청년희망단은 이 캠페인을 통해 지난

해 11월 삼천도서관을 시작으로 매일 효자도서관, 평화도서관, 서신도서관, 송천도서관 등을 찾아가 청년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청년희망단은 또 이날 캠페인에서 제안할 예정인 청년희망단이 구상한 11개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선호도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2차 정책위원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